

학부제의 특성과 현실적 타당성

백 종 현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 교무처장

1. 머리말

우리나라 대학들이 지난 50여 년간 많은 변화를 해 온 것은 확실하다. 특별히 양적으로 크나큰 성장을 하여 전국적으로 164개의 4년제 대학이 산재할 뿐만 아니라 전문대학을 비롯하여 기타 여러 유형의 대학들이 설립되어 있다. 그러나 항상 해결되어야만 할 과제로 제기되고 있는 것은 바로 대학교육의 질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역대 정권들도 여러 유형의 정책을 내어 놓고, 다양한 시도를 기울여 온 것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예를 들어 대학의 입학시험 제도만 하더라도 최근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변화를 계속해 왔는가를 보면 이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듯하다.

그러나 오늘날까지 많은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아직도 이를 위한 부단한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임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지난 2~3년 동안 대학들은 특성화를 통한 역할 분담과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특히 5·31 교육개혁안이 발표됨과 함께 열린 대학교육이 제시되기에 이르렀다. 이로 부터 학과간의 벽을 낮추고 최소 전공인정 학점제를 도입하며, 다전공과 복합학문의 통로가 열리게 되어 학부제를 본격적으로 대학사회에 제기하는 계기가 되었다.

물론 학부제의 채택이 교육의 질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만능약은 아닐지언정, 제도적인 특성에 비춰 지난날의 학과 중심제보다는 변화된 교육환경과 학습자 요

구에 보다 적합할 수 있는 제도일 뿐만 아니라 대학교육의 질 문제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2. 학과제의 문제점

우리 대학들이 그동안 성장해 온 모습을 전반적으로 표현한다면, 그 대학의 건학 이념이나 규모 또는 입지 조건과는 전혀 무관하게 이른바 서울에 위치한 명문 대학을 단 순히 모방하면서 백화점식 성장을 해 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로써 체제나 제도 적인 측면에서는 거의 모든 대학들이 획일적인 모습을 갖추고, 심지어는 교육과정마저도 매우 비슷하게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구조적으로 매우 유사한 대학들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난 몇 년 동안 시도해 온 특성화란 그렇게 용이한 과제는 결코 아니었다. 뿐만 아니라 사립대학들은 취약한 재정문제를 해결하려는 방편으로 학생수를 늘리는 길을 택하다 보니 많은 학과를 신설하게 되었고, 이로써 학사과정에서는 찾아보기조차 힘든 학과들이 설치되었다. 특별히 국·공립대학의 경우는 보다 많은 교수를 확보하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되기도 하였다. 왜냐하면 이들은 학생 정원을 늘리는 것보다 새로운 학과를 신설하는 것이 더 많은 교수를 확보할 수 있는 법률적·행정적 편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전국 대학에 설치되어 있는 학과수만 하더라도 557개이며, 명칭만으로도 1,900여 개에 달하고 있다. 특별히 자연계의 경우는 더욱 심하여 231개의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형편이다. 뿐만 아니라 대학관련 법령과 제도도 학과중심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새

로운 학과의 신설에 제동을 가하고 있지 못했다. 물론 그동안 당국에서는 몇 차례의 유사학과 통폐합을 통하여 폭넓은 교양과 다양한 학문적 기초를 준비하게 하려는 노력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학교육은 교육 수요자의 요구와 추세와는 전혀 상이한 방향으로 왜곡되기 시작하였으며, 대학교육의 질 문제는 점진적으로 사회적이며 정치적인 문제로 비약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위와 같이 다기화된 학과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광범위하게 제기하고 있다.

첫째, 대학교육은 오늘날 점진적으로 엘리트 양성으로부터 대중형 나아가 보편형으로 발전되어 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해당 학령 인구 중 대학에 진학하는 자가 49.2%에 이르러 대중형 또는 보편형의 성격을 지닌 대학교육이 타당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주장이다. 따라서 급진전하고 있는 산업사회에 쉽게 적응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보편형의 대학교육 성격 설정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 학과제는 학교의 재정이나 교수의 확보 수단으로 세분화하여 왔기 때문에 교육 수요자의 측면에서는 폭넓은 기초지식보다는 편협한 전공지식에 집중되었기에 현실을 외면한 매우 비현실적인 대학교육이 불가피했다는 것이다.

둘째, 고등학교에서는 대학에 진학할 때 적성과 능력을 동시에 고려하여 학과를 선택한다기보다는 고등학교의 성적에 맞추어 학과를 정하기 때문에 대학 진학 후 많은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그동안 대학에서는 학과간의 장벽이 너무나 두터워 학점 및 교수 교류나 입학 후에 학과를 변경하는 전과와 같은 것은 엄두도 내지 못하였다. 따라

서 대학 입학 후 자기의 적성이나 능력이 새로이 발견된다고 하더라도 전혀 학과를 변경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었으므로 적성의 개발 기회를 크게 상실하게 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학업에 대한 성실성을 결여하거나, 심지어는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였다.

셋째, 교육과정의 설계나 운영이 불합리하거나 왜곡되어 있었다. 학과가 지나치게 세분되어 있어 기초 교과목의 경우 한 대학 내에서도 몇 학과에 걸쳐 동일한 교과목이 설정되어야 하나, 이는 기존학과들의 저항과 방해 때문에 불가능한 경우가 허다하였으며, 운영 면에서도 같은 내용을 다른 과목 명칭으로 강의해야 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많은 혼란과 중복을 줄 수밖에 없었고, 심지어는 전공 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까지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뿐만 아니라 대학에 부당하게 많은 재정상의 부담을 지게 하여 학교 재정을 곤란하게 만들기도 하였다.

넷째, 학교의 시설 및 기자재에 대한 투자도 중복되게 이루어졌다. 즉, 유사학과에서 각기 시설 및 기자재를 준비하기 때문에 학교 전체로서는 편중된 투자, 나아가서는 시설 및 기자재의 활용도 매우 낮은 수준으로 머물게 하였다. 심지어는 교수 확보에서도 편중을 초래함으로써 교수 구성의 다양성을 유지하기조차 어렵게 하고 있다.

다섯째, 학과제는 지나친 보수주의적 운영으로 교육 수요자의 요구와는 무관하게 경쟁의 논리를 기초로 한 대학의 특성화를 크게 저해해 왔다. 본래 교육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경쟁을 유발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여 대학을 성장·발전시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것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편협한 전공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학과제는 보수적인 운영이 불가피했으며, 특별히 경쟁논리를 기초로 한 특성화로의 변환은 거의 불가능했다.

아직도 때로는 학과제에 대한 향수로 교육의 질 문제를 내용 중심이 아니라 제도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은 크나큰 오류라는 지적도 있다. 특히 최근 새로이 제기되고 있는 학부제에 관하여서도 제도 지향적인 개혁이므로 차제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현재 제시되고 있는 학부제에 관하여 단순한 제도의 개선이라고 이해하는 것만은 오류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3. 학부제의 타당성

우리나라의 대학들은 위와 같이 학과를 지나치게 세분화한 결과, 선진국들에 비해 10여 배 이상의 다기화된 학과를 설치하게 되었다. 한때는 이를 특성화로 잘못 이해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부작용은 교육의 질을 점진적으로 하락시킬 뿐만 아니라 교육의 경쟁력에도 커다란 타격을 주어진 것이다. 이에 당국은 1988년부터 대학정원 조정지침을 마련하여 유사학과를 통폐합하는 것을 적극 권장하기에 이르렀다. 그 결과 1995학년도에는 11개 대학에서 45개 학과를 21개 학과로 통폐합하는 성과를 낳았다. 그러나 이는 결코 위에서 제시한 것과 같은 투자의 비효율성과 비현실적인 인력 양성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것은 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그동안의 학과제 운영 경험에 비춰본다면, 학과제를 그대로 용납하면서 유사

학과를 단순히 통폐합하는 방법으로는 제도적인 변화만으로 그칠 가능성을 얼마든지 예상할 수 있다. 특히 대학에서 가장 민감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교육과정의 개편 문제에 이르면 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문제들을 제도적인 개혁을 통해 실질적으로 교육의 내용까지도 개혁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은 바로 학부제로의 이행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항상 그렇듯이 완벽한 제도는 물론 없다. 즉, 학부제도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몇 가지의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 상황에 비춰 본다면 보다 많은 타당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우선 학부제는 단순한 유사학과의 통합이 아니라 관련 학문 분야를 하나의 단위 학부로 묶어 상호간 학문적인 교류를 보다 긴밀히 하여 상승적인 발전을 조장하며, 교양교육과 인성교육을 강화함으로써 건전한 가치와 철학을 강조할 수 있는 제도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로써 교육 수요자에게 인성교육은 물론 급진전하는 산업사회에 쉽사리 적용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대학의 운영이라는 측면에서도 효율성과 유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특징에 유념해야 할 것이다.

아래에서는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학부제가 지니는 구체적인 몇 가지의 현실적인 타당성에 관하여 제시해 보겠다.

첫째, 학부제는 교육 수요자 지향적인 교육을 함으로써 그들의 현실적인 요구를 실현할 수 있다. 물론 교육을 실용성이라는 잣대만으로 재려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하여 학문을 위한 학문, 즉 현학적인 것만이 교육의 과제는 아닐 것이다. 따라서 학부제에서는 종래 45~50학점 수준이던 전

공을 24~36학점으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140학점 수준 이하에서도 복수전공 또는 그 이상의 다중 전공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 있다. 이로써 학생들은 깊이보다는 폭넓게 다양한 지식과 기술을 배울 수 있어 급속히 진전되어 가고 있는 산업사회에 쉽게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학부제로의 개편을 단행한 학교들의 전공 이수 학점은 아직도 전공학점 인정 상한이라고 할 수 있는 36학점 선에 육박하고 있어 학부제의 본래 취지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제기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전공 인정 학점 수준을 조화롭게 하향 조정하는 것은 당연한 과제가 될 것이다.

학부제의 이러한 장점은 고등학교의 성적에 맞춰 대학 전공 학과를 정하고 대학 입학후 적성과 요구에 맞지 않아 내내 불행한 대학 생활을 하는 학생이 다수 있는 우리 현실에 비춰 본다면 매우 가치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우리 대학의 현실에 비춰 상당히 우려하는 사람들도 적지만은 않은 듯하다. 즉, 우리의 대학은 인문·사회계열이나 자연계열을 막론하고 이른바 인기 전공이 있고, 반면 비인기 전공이 있어 학생들이 인기 전공에만 쏠려 비인기 전공은 학급마저도 형성하기가 어려운 양극화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는 전혀 염려되지 않는 부분은 아니나, 몇몇 조사에 의하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경쟁적인 전공만을 택하여 복수전공을 하지 않으려고 할 뿐만 아니라, 한 전공을 경쟁적인 인기전공으로 택한다면 다른 하나는 비경쟁적인 전공을 택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한 하나의 전공

을 장래의 사회진출에 보다 유용한 전공을 택한다면, 다른 전공은 이것과는 다르게 인성의 함양을 위한 전공이나 철학이나 종교와 같은 전공을 택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물론 반드시 이토록 조화롭게 이루어지지만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전공을 탐색하는 기간(서강대의 경우는 입학후 2개 학기입)을 통하여 충분한 지도를 한다면 상당히 극복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이른바 인기전공으로의 쇄도는 당분간 일어날 것이고, 이는 대학의 성격과 구조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제2전공의 선택에서는 원칙적으로 아무런 제약 없이 전공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대학의 특성화와도 연결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물론 학부제에서 반드시 단일 전공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아니다. 대학원에 진학하여 보다 깊은 연구를 하려는 사람들에게는 선별적으로 허락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전공 학점을 대폭적으로 하향 조정했기 때문에 때로는 부실한 전공교육, 나아가서는 체계 없는 대학교육이라는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이 동시에 반드시 강구되어야만 할 것이다.

둘째, 학부제는 대학의 특성화를 촉진함으로써 이른바 대학간의 역할 분담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학의 특성화는 그 모형을 어떻게 설정하든지 연구, 교육 그리고 봉사와 같은 기능을 포괄하며, 단지 이들의 비중이 달라지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대학간의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고 특정대학의 위상이 차별화될 수 있는 것이다.

5.31 교육개혁안에 의하면 대학 모형으로 학문연구 중심대학, 교양 중심대학, 전문

가 중심대학 그리고 관리자 중심대학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학문 연구, 교양 습득, 산업에서 요구하는 인력의 양성 그리고 관리자 배출이라는 목표 중에서 전부가 아닌 일부를 선택하여 차별적 역할을 기대하고 있는 듯하다. 따라서 무엇을 택하는가에 따라 다양한 학사운영 방법이 제기될 수 있다.

학부제는 이러한 경우 유일무이한 제도라고는 할 수 없지만, 본래의 뜻에 비취 본다면 학문연구 중심이나 교양 중심을 지향하는 대학에는 매우 의미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전문가 중심이나 관리자 중심을 지향하는 경우는 두 가지의 전략적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하나는 지난날 학과제가 지니는 폐단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면 학부제를 선택할 수 있으며, 둘째로는 차별화의 명분 아래 확일적으로 학부제를 선택할 필요성은 없기 때문에 부분적인 선택을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아마도 이와 같은 것은 대학을 지난날과 같이 확일적으로 단순서열화하는 것으로부터 탈피하여 차별적 성장을 크게 도울 수 있다고 생각된다.

셋째, 학부제는 실질적으로 대학원 교육의 질 향상을 가능하게 한다. 학부에서는 폭넓은 전공지식과 교양을 습득하면서 자신의 적성을 중심으로 타당한 전공을 탐색하게 하고, 대학원에서 전공을 깊이 있게 그리고 체계적으로 이수하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현실적으로 오늘날 대부분의 대학원 프로그램은 본교에서 학사과정을 마친 경우는 한두 학기는 할 일이 없다고들 한다. 이는 우리 대학원의 수준과 질을 잘 설명하고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된다. 뿐만 아니라 다기화된 학과제에서 발생하고 있는

많은 낭비를 대학원 프로그램을 위한 집중적 투자로 대신한다면, 영세한 대학의 재정적 한계를 크게 극복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특히 학부제에서는 일반적으로 전공 기초 과목들이 대단위 강의로 시행될 것이므로 전공 고급과목을 연구하고 강의하려는 교수들의 성취 욕구를 크게 만족시킬 수는 없다. 이로써 대학원 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도 예상된다. 그러나 이는 학부제로의 이행만이 대학원 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은 결코 아니며 이것이 초래할 수 있는 결과로서 상정해 본 것이다. 실제로 대학원 교육의 질적 향상은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할 것이며, 적극적인 인적·물적 투자를 요구한다는 것은 자명한 원리라고 할 수 있다.

4. 맺음말

대학교육의 질 문제는 어느 특정 처방만으로 해결될 문제는 결코 아닌 것이다. 항상 그러하듯이 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전혀 도외시킬 수는 없다. 이제까지 우리는 남의 것을 모방하면서 현재에 이르렀다. 국내적으로도 마찬가지로 서울 소재의 몇몇 대학을 모방하는 것이 개선의 전부였다고 보아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예를 들면 교육과정에서 행정조직과 제도에 이르기까지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져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항상 대학 줄 세우기가 전공별도가 아니라 대학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반드시 유념해야만 할 문제이다.

최근 제기되고 있는 학부제 역시 모든 대

학에 전적으로 유효하리라고 기대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간 다기화된 학과제의 운영으로 야기되었던 대학교육의 왜곡과 비효율적인 행정의 문제는 광범위하게 치유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학부제를 학과의 단순한 통합과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다면, 이러한 효과를 결코 기대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학부제에 대한 당국의 바람 물이식 강요는 더욱 바람직하지 않다. 어느 대학은 1996학년도 신입생 모집 단위를 학부별로 결정한 결과, 입학생의 성적이 상당 수준 향상되었다는 경험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대학 나름대로의 현실과 요구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말을 우물까지 인도하는 것으로 족하지, 억지로 물을 먹이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더욱이 대학, 특히 사립대학들의 취약한 재정을 국가가 도우며, 이를 차별적으로 돕는 것은 행정적 차원에서 매우 당연한 듯하다. 그러나 학부제의 채택 여부를 지원의 기준으로 삼는 것보다는 결실 여부 또는 그 의 정도를 기준으로 한다면 매우 바람직할 것이다.

요즈음 생물학에서의 '다윈이즘'이 산업과 경제에도 적용된다 하여 '이코노믹 다윈이즘'이 한창 강조되는 듯하다. 학부제는 멀지 않은 장래에, 교육에도 이것이 확실하게 적용됨을 실증해 보여줄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을지 모르겠다. ❀

백종현/서울대 상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박사학위를 받았다. 미국 네브라스카 주립대 관리학과 교수를 거쳐 현재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며 교무처장을 맡고 있다. 주요 저서로 『생산관리론』 등이 있고, "시설 입지 결정 방법론에 관한 비교 연구"의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다.